

<2010년 8월 24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우리가 행하는 만큼 주님께 사랑을 받는다. 행하는 만큼 행한 대로 갚아 준다는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지, 우리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 아니다. 고로 사랑도, 모든 것도 우리가 행하는 만큼 갚아 주신다.
2.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같이 저같이 다 해 주시면 공의를 측정할 수 없다. 모든 인생들이 행한 대로 받기에 누가 잘되어도 원망할 수 없고, 못 되어 형벌을 받아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원망할 수 없는 것이다.
3.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말씀하신 대로 주셨다.
4. 사막에 작두펌프가 있다. 땅속에는 물이 많아도 그냥은 물이 뿜어 올라오지 않는다. 누구든지 작두펌프 속에 먼저 물을 한 바가지 붓고, 작두질을 하여 뿜어 올려야 물이 올라온다. 이와 같이 주님께 먼저 사랑을 드리고 주님을 먼저 사랑해야 주님의 사랑의 시동이 걸린다. 인간이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의 사랑이 시작된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예수님도 이미 6000년 동안 우리의 조상 때부터 우리를 사랑해 오셨다. 이제 우리가 하는 것만 남았다. (아래 참고 자료 있음.)



<참고> 원형 그대로의 작두펌프입니다.

- ① 먼저 물 한 바가지 부어 주고,
- ② 힘차게 작두질을 하여 저어 주면
- ② 물이 샘솟아 올라와 이곳으로 나옵니다.

5. 지옥에 간 자들 중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지옥에 간 자들은 없다. 그 사랑을 받았어도 자기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을 죽도록 믿고 사랑하지 않아서 지옥에 간 것이다.

6.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을 믿어도 먼저 ‘사랑’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으면 삶을 살아도 실상 형제와 같이 사는 것 같고, 친구와 같이 사는 것 같다. 애인과 같이 사는 것 같지 않다.